

전통문화자원 로컬 콘텐츠 브랜드화 추진

전주한벽문화관, 마당창극 출연자 공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14개 시·군 대상 전통예술지역 브랜드 상설공연 사업 공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 전통예술지역 브랜드 상설공연' (이하 전통브랜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6일 재단에 따르면 올해 전통브랜드는 기존의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과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을 통합해 도민의 문화향유 확대와 지역관광활성화 등 재단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재구조화했다.

접수는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공문(시·군) 및 방문(수령단체)을 통해 사업계획서와 발표자료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시·군비 매칭이 가능한 도내 14개 시군이며, 지원 대상사업은 시·군과 공연단체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특화 상설운영이 가능한 공연콘텐츠다.

지원 내용은 역사, 무형, 한옥건물 및 경관 등 3개 분야 중 1개를 선택해 공연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

공연 횟수는 10회 이상 운영해야 하며, 작품성 제고 및 공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유료공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람료는 시군에서 적정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주요 변경사항은 기존의 '한옥자원'에서 '전통문화자원'으로 확장해 '전통예술지역'을 강조한 대표 로컬 콘텐츠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이에 지원규모를 5개 시군에서 6개 시군으로 확대하며, 공연장소 및 시간, 지원분야 등의



2023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사진

범위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 작 중 1개 우수 작을 뽑아 전북 대표 상설공연인 '전북관광브랜드공연'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는 매력 있는 지역의 고유 전통문화 자산과 명소가 많이 때문에 올해 좋은 콘텐츠가 발굴되길

희망한다"며 "많은 시군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재단 예술회관운영팀(063-230-749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2월 1일까지 소리·연극·무용 등 3개 분야 문화예술인

전주한벽문화관(관장 김철민)은 오는 2월 1일까지 2024년 전주 브랜드공연(마당창극)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에 출연할 재능과 열정을 갖춘 출연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주마당창극은 2012년 '해 같은 마패를 달 같이 들어메고' 작품으로부터 시작해 올해로 13회차를 맞는 상설 공연으로, 전주 한옥마을에서 즐길 수 있는 전주만의 브랜드 공연이다.

모집 대상은 소리, 무용, 연극 등 3개 분야에서 역량을 갖춘 문화예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연을 희망하는 문화예술인은 지원신청서 등 서류와 판소리, 연기, 무용 등을 담은 영상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해 실기 및 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 공연은 전라감사를 소재로 전주 8경, 전주 부채 등 전주만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 공연은 5월부터 10월까지 전주한벽문화관 마당창극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전주한벽문화관 관계자는 "전주 마당창극은 한옥마을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한 공연"이라며 "재능과 역량을 갖춘 문화예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당창극에 출연을 희망하는 문화예술인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jf.or.kr) 또는 전주한벽문화관 누리집(http://www.jt.or.kr)에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문화재청, 문화유산 피해 예방 사업 15억원 지원

문화재청은 올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유산 피해 예방 사업에 15억을 지원한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 산림환경 변화 등으로 세계 각국에서 국가유산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0년부터 국가유산 분야 전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7월에는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고자 올해부터 향후 5년간 '기후변화대응 국가유산 피해회복 및 적응관리 기술개발' 사업에 총 231억을 투입하기로 하고, 올해 이 중 15억 원을 산·학·연에 지원해 사전 피해 예방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에 의한 국가유산 피해 발생 시 피해회복 기술개발 과제와 보존관리 고도화를 위한 적응관리 기술개발 과제로 구성된다.

국가유산 피해회복 기술개발 과제는 목조 건축유산에 대한 화재안전 처리기술, 생물문화종회복기술, 고목재 건축유산에 대한 회복처리기술, 지능형 건축유산정보모형화(모델링) 기술 등 4개 기술이다.

국가유산 적응관리 기술개발 과제는 건축문화유산의 피해유형별 손상지표 및 위험도 평가기술과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식물유산 생육 상태 변화 예측체계 개발·실증과 생육 상태 상시 점검이다.

이번 사업 공모는 오는 2월 16일까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뉴시스

전라북도예술회관 상반기 수시대관 접수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29일부터 2월 13일까지 전라북도예술회관 상반기 수시대관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접수방법은 대관신청서와 전시(공연)계획서를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에서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르면 이번 수시대관은 공연장을 새롭게 개편해 대관 운영하며 전시실은 정기대관 후 잔여 공간을 선정한다.

전시실은 3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약 3개월간 매주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1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연장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매주 수요일

부터 일요일 사이의 일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정기휴관일이다.

한편, 전라북도예술회관에서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에 우수한 작품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자 매년 상·하반기 정기대관과 수시대관 공고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예술회관운영팀(063-230-7492)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기대의 물결이 가닿은 시선'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 6기 입주작가 결과보고전 개최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 6기 입주작가 결과보고전 '기대의 물결이 가닿은 시선'을 오는 2월 25일까지 팔복예술공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 6기 입주작가인 권영성, 김명득, 김영진, 박승만, 오지은, 이부안, 이윤은 14.5:1의 경쟁률을 뚫고 지난 2023년 3월에 입주해 입주보고전을 시작으로 기획세미나, 리서치투어, 비평가매칭, 오픈스튜디오, 예술인 및 기획자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역량을 강화했다.

'기대의 물결이 가닿은 시선'은 7인의 입주작가가 팔복예술공장을 통해 마주한 새로운 시선과 감정 등을 표현하고 다양한 시도와 실험, 예술적 탐험이 작품으로 전이돼 각각의 언어로 풀어낸 전시다.

특히 이번 전시 기간 중 3일 동안 작가의 창작세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1:1 비평가매칭·'공개비평'이 진행된다. 공개비평은 입주작가와 매칭된 비평가 2차례에 걸친 개별비평을 바탕으로 작가의 창작작업에 대한 집중적 제언과 다각적인 조언을 통해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즐기는 차원을 넘어선 작품의 가치와 의미를 분석하고, 미술 담론을 생산하고자 했다.

전주문화재단은 2018년부터 창작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기반으로 창작·소통·향유의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57명의 국내·외 시각예술가를 지원하고 있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6기 입주작가들이 1년여 간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에서 다양한 활동과 교류를 바탕으로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 많은 관람객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전시는 팔복예술공장 A동 2층 전시실과 B동 이팝나무홀에서 진행, 관람료는 무료다. 사전 예약 없이 현장방문으로 관람이 가능하고,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매주 월요일 및 설날 당일은 휴관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창작기획팀(063-212-88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